

구(舊). 경기실크 공장부지 문화적 활용방안

2021. 11. 20. 토

여주세종문화재단

기획경영팀장 서동수



Contents

- I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의미
- II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추진경과
- III 구(舊). 경기실크 공장부지 이해
- IV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I. 문화적 활용(문화재생) 의미

문화재생 개념

- 폐산업시설과 유휴공간 등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문화예술, 지역사회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장소로 재 창조

사업목표

- 문화적 재생 작업을 통해 창의 문화 중심의 사회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문화적 공공장소 조성을 목표로 함

참고사항

-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~2018년 까지 노후화되고 방치된 산업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재활성화 하기 위해 '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' 을 추진함
- 유휴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2019년 부터 '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'으로 사업명칭을 변경, 추진

Ⅱ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추진경과

- 2020. 6. 2 :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기본구상방안 연구지원 공모 선정
 - 전국 5개소 선정 (여주시, 부천시, 대구광역시, 나주시, 안동시)
 - 여주(하동 잠업연구소-문화), 부천(작동 군부대 이전부지-군사), 대구(유진광학-산업), 나주(나주극장-문화), 안동(안동역.역사일원-교통)
- 2020.7. ~ 12. : 협력워크숍 3회, 현장회의 3회 실시
- 2021. 2월 : 2022년 시도 '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' 수요조사 제출
- 2021. 6월 : 경기실크 무인방범 시스템(CCTV) 구축
- 2021. 7월 : 창고1동 트러스 안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
산업유물 전수조사 및 보존관리 용역 착수
- 2021.7. ~ 10월 : 하동 경기실크 아카이브 용역 실시 완료

Ⅲ. 구(舊). 경기실크 공장부지 이해

1. 경기실크 역사

- 위치 :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93 (하동 123-6)
- 규모 : 부지면적 8,955m² (약 2,713평)
 - 공장동, 건건장 등 9동
 - 자동조사기, 자건기, 건건 운송 도르래 등
- 특징 : 1963년 건축, 1993년 공간활용이 멈춰지기 까지 여주자영농고로 출발해 잠업연구소 였다가 한잠기업 (비단과 기계생산)으로 변화하는 등 30년 동안 잠업 연구 시설 및 관련 생산시설로 사용
- 가치 : 하동 잠업연구소는 여주 최후의 잠업시설, 한때 여주시 경제를 견인하던 잠업과 관련된 마지막 시설 임



Ⅲ. 구(舊). 경기실크 공장부지 이해

2. 경기실크 공장부지 매력

- ▶ 번성했던 산업문화유산 체험의 장 → 여주의 자부심, 우리지역에 이런곳이...
- ▶ 50대 이상에게는 → 양잠에 대한 추억의 장소(힘들었지만 경제적 보상...)
- ▶ 50대 이전에게는 → 산업화에 대한 배움의 장소(공유하고, 느낄수 있는...)
- ▶ 구도심 활력 매개체 → 구도심에 직접 소비하는 장소(알차게 보낼 수 있는...)
- ▶ 옛 건물 활용도 높음 → 문화체험 조성 공간확보 가능(공연장, 전시실...), 접근성 高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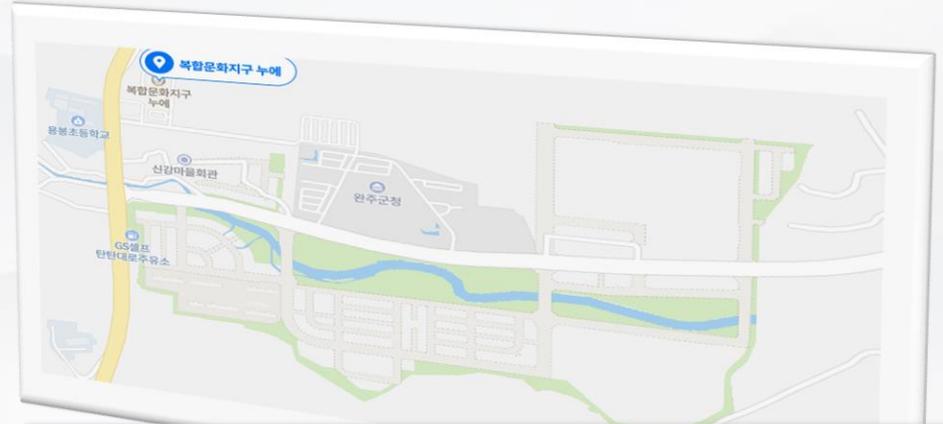
- 활용방안 : 여주 문화예술 실크하우스 활용(가칭)
- 문화적 활용사례

사 례	옛 용도	부지면적
완주군 잠종장 복합문화지구	호남 잠종장 (잠업시험지)	약 52,000m ² (약 15,730평)
청주 문화제조창	연초 제조창 (담배공장)	12,850m ² (3,900평)
문래동 문화창작촌	철강단지 (철강 판매상가)	단지 구경(관람) 약 2~3시간 소요
강화도 조양방직 예술공간	방직회사 (직물공장)	약 6,600m ² (약 2,000평)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01 완주 잠종장 복합문화지구

- 위치 :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-9
- 면적/규모 : 약 52,000m² (약 15,730평)
- 규모 : 28개동 (現 완주군청 인근)
- 소개 : 호남잠종장(잠업시험지, 1985년 완공)
 - 완주군 잠종장 완공 후 35년 경과
 - 2011년 부안 누에타운으로 이전 후 폐쇄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Ⓢ 복합문화지구 추진경과와 운영컨텐츠

- 사업명 :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평가 컨설팅 사업
- 사업기간 : 2015년 ~ 2017년
 - 1차(2015.3. ~ 2016.2.) : 건물 리모델링 중심의 사업진행
 - 2차(2016.3. ~ 2017.2.) : 프로그램 등 컨설팅 사업
- 개관 : 2018년 11월 (명칭 : 복합문화지구 누에)
- 공간구성 : 누에아트홀, 교육동, 게스트하우스, 캠핑장&라운지 등
- 운영 프로그램
 -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, 꿈다락 토요문화학교, 문화네트워크, 공방, 전시 및 공연행사 등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㉠ 복합문화지구 시설배치도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02청주 문화제조창 복합문화공간

- 위치 :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01-1 일원
- 면적 : 12,850m² (약 3,900평)
- 규모 : 지하1층/지상5층 (건축연면적 51,515m²)
- 소개 : 구. 연초제조창 건물 본관을 공예클러스터, 민간 임대시설로 리모델링
 - (공예클러스터 3층, 4층) : 전시장, 갤러리샵, ART샵, 자료실, 수장고 등
 - (임대시설 1층, 2층, 5층) : 문화및 집회시설(체험장), 판매 시설 등

준공 전



준공 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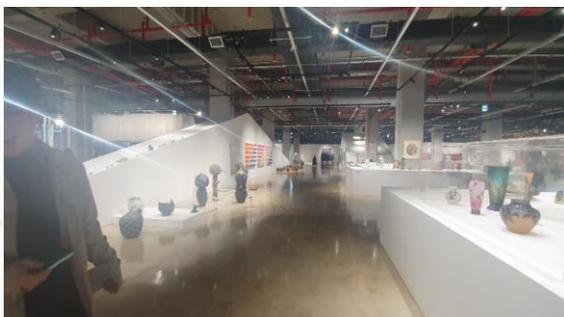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④ 청주 문화제조창 변화

- 2004년에 가동이 중단 되어 15년 동안 불이 꺼진 채 방치 되었던 옛 연초제조창(담배공장) 부지가 공예 클러스터 등의 문화공간과 시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인 "문화제조창" 으로 탈바꿈
- 옛 연초제조창은 16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실, 갤러리샵을 포함하는 공예클러스터와 문화 교육센터, 판매시설 및 체험장 등의 민간임대시설로 변모
- 청주 문화제조창은 청주시의 새로운 상징물로서 대규모 이벤트 광장들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, 상권 활성화 등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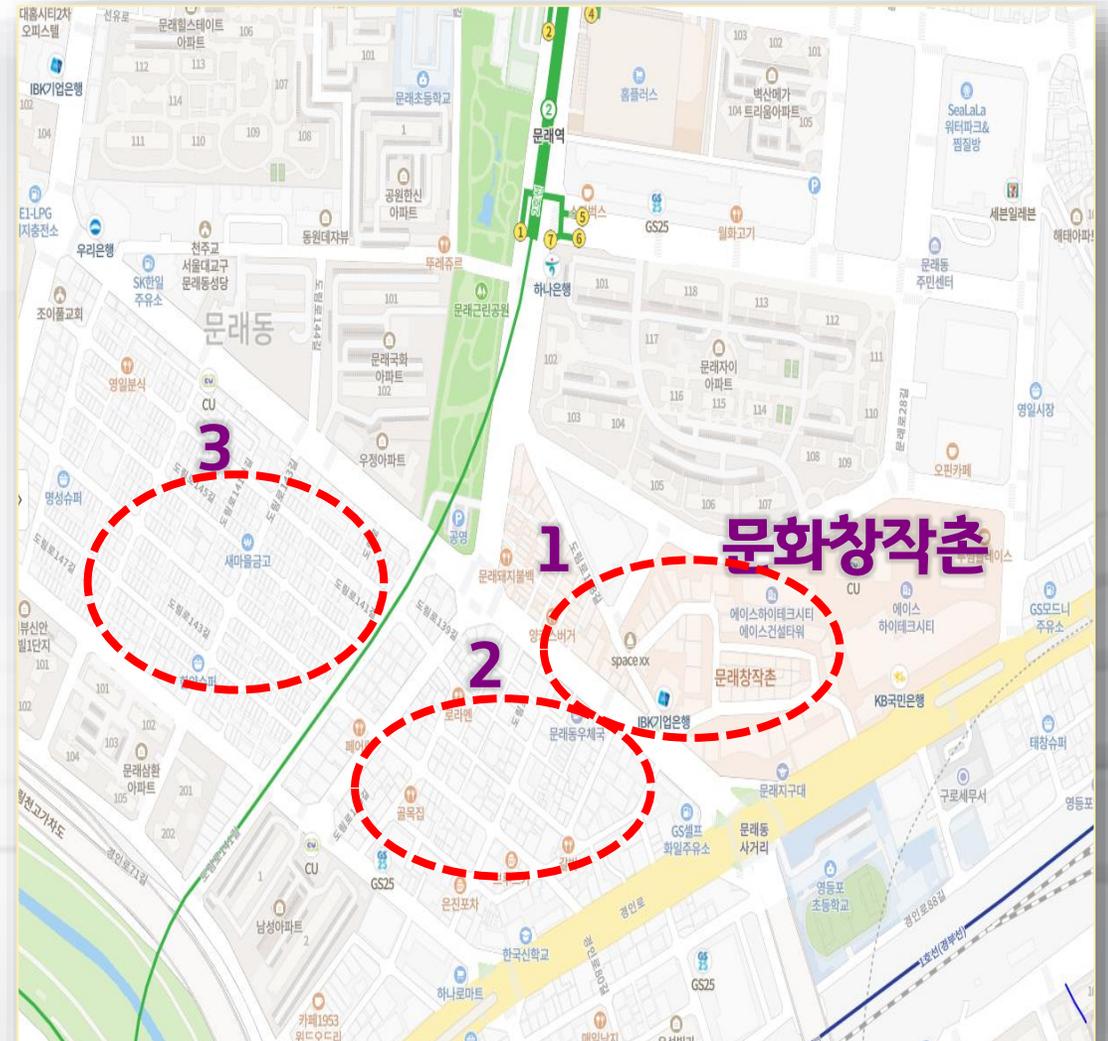
④ 청주 문화제조창 운영공간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0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화창작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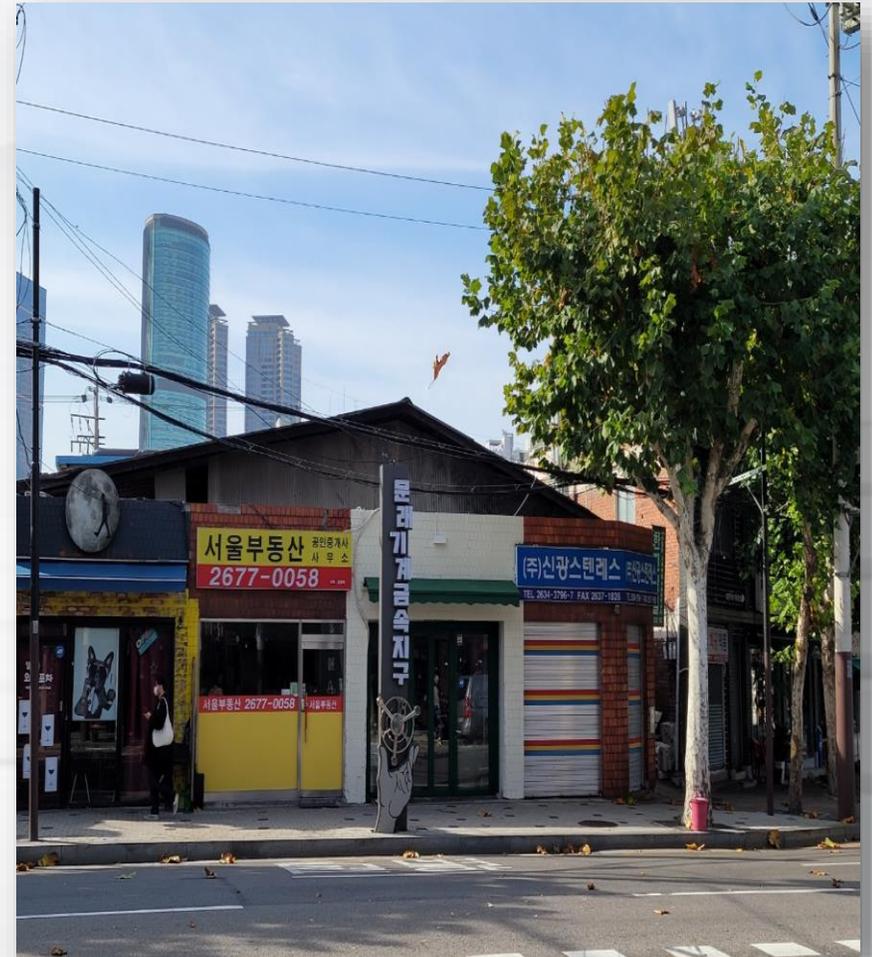
- 위치 :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(문래역) 일대
- 면적 : 성인도보 2~3시간 이동(천천히) 규모
- 교통 : 지하철 2호선 문래역에서 도보 5분
 - 인근 홍대입구/신촌/이대역 등 대학생 수요층
 - 직장인 수요(구로, 디지털단지, 여의도 등)
- 문화컨텐츠 : 카페/공방/갤러리 등 입주, 문화행사 문화예술 강좌 진행 등
- 과거모습 보존 :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, 그 위에 예술을 덧입히는 식으로 운영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④ 문래동 문화창작촌 역사

- 문래창작촌은 문래역과 상당히 가까운 역세권으로
기존 철강 산업이 위주였던 곳
- 쇠퇴산업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
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생겨난 곳
- 1960년대 말 철강단지 조성, 1970~80년대 철강산업의 전성기,
1990년대 IMF 등으로 쇠퇴. 철재상, 금속가공 소공장과
사무실 등의 이동으로 2층, 3층이 점차 비어 감
- 2002년을 전후로 빈 공간에 예술인들이 입주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② 문래동 문화창작촌 변화

- 서울시는 문래동과 도림동 일대의 철강판매상가를 외각으로 이전시키려 했으나 결국 **문래동의 철강산업은 점점 쇠퇴했고, 빈자리만 늘어감**
- 비슷한 시기에 저렴한 작업공간을 찾던 예술가들이 이 빈공간을 메우기 시작 했으며, **약 200명의 예술가가 활동**하고 있으나 **재개발**이라는 **이슈**가 문래동을 달구면서 **예술가의 활동영역은 줄어들고 있음**
- 현재는 철공소와 문화예술공방이 함께 있는 예술촌이 되어 있음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④ 문래동 문화창작촌 모습_21.11.7.(일)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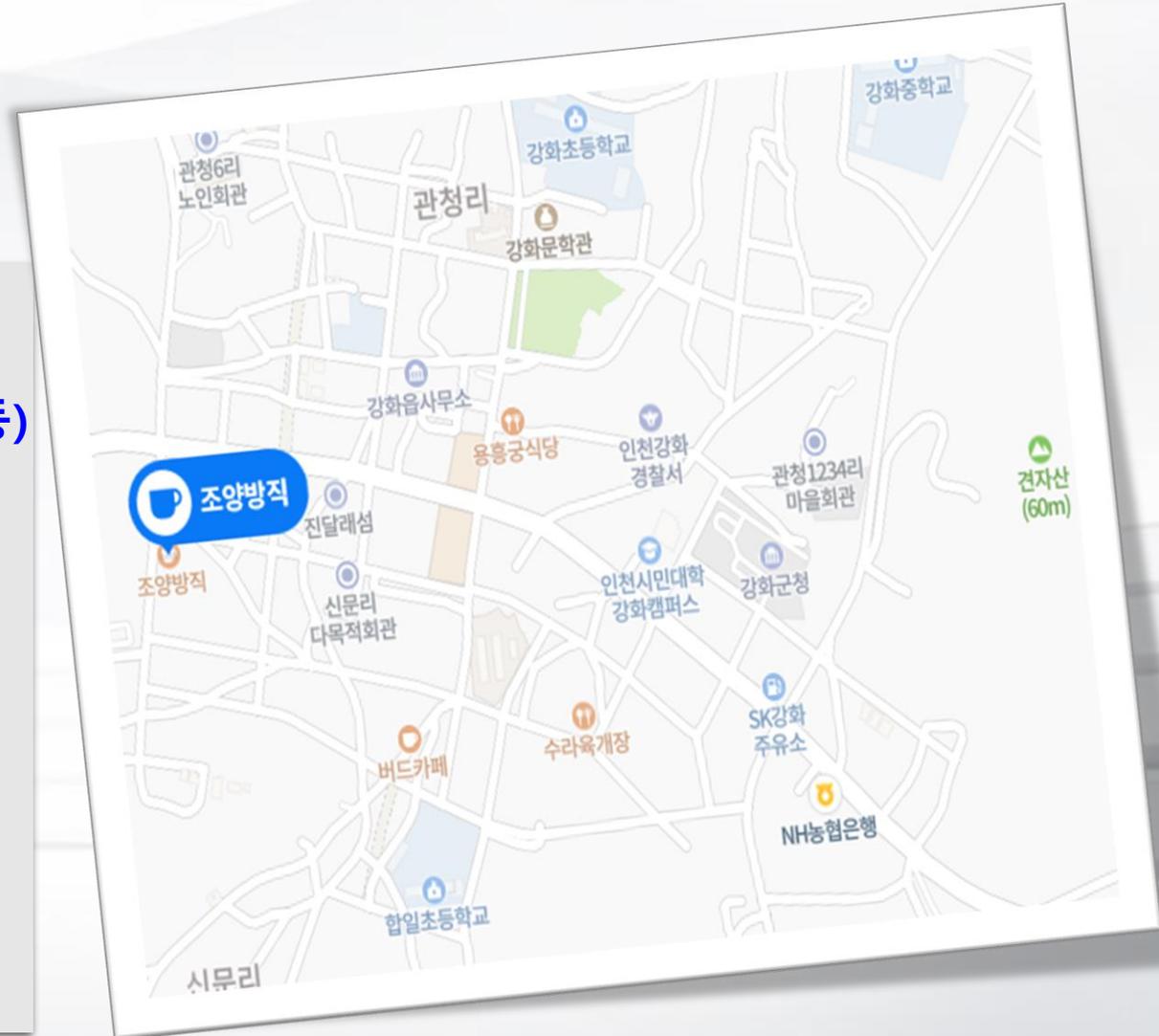
Ⓢ 문래동 문화창작촌 모습 _21.11.7.(일)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04 강화도 옛 조양방직 공장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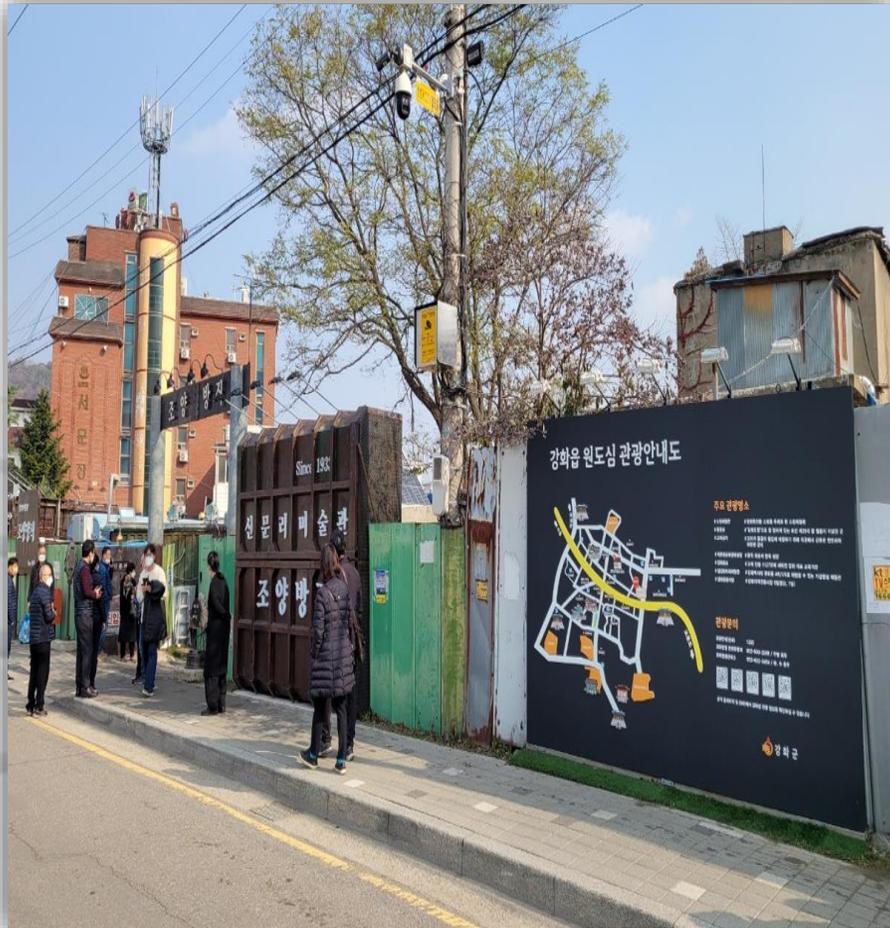
- 위치 : 인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12
- 면적 : 약 2,000평 (옛 건물 7~8동, 갤러리, 카페 등)
- 특징 : 건물외관은 그대로 살렸고 방직기계가 있던 작업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변모, 테이블로 재탄생
- 강화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
 - 침체한 공장터를 개성넘치는 예술공간으로 변화
 - 제2의 부흥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
-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앞으로 더 조명 받을 것임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18

④ 강화도 옛 조양방직 공장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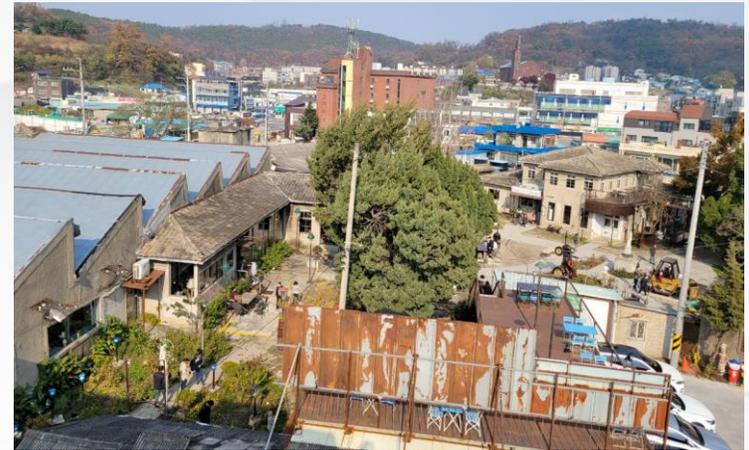


- 조양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방직회사. 1960년대 까지 최고 품질의 인조직물 생산. 이후 수십개의 방직회사들로 강화도는 최전성기를 누림
- 하지만 방직공장이 대구나 구미 등지로 옮겨가면서 강화도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됨. 조양방직은 20~30년 정도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가 보수공사를 해 2018.7월에 현재 모습으로 오픈
- 곳곳에 놓인 조형물들과 공간들은 시간의 흐름을 품고 있음. 조양방직 안쪽 성신상회 코너는 빈티지 가구, 소품으로 재미가득
- 배타적이었던 주민들도 지금은 좋아한다. 침체했던 공장터를 개성 넘치는 예술공간으로 탈 바꿈.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됨

출처 고양신문(2018.10.5)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④ 강화도 옛 조양방직 공장 모습_21.11.14.(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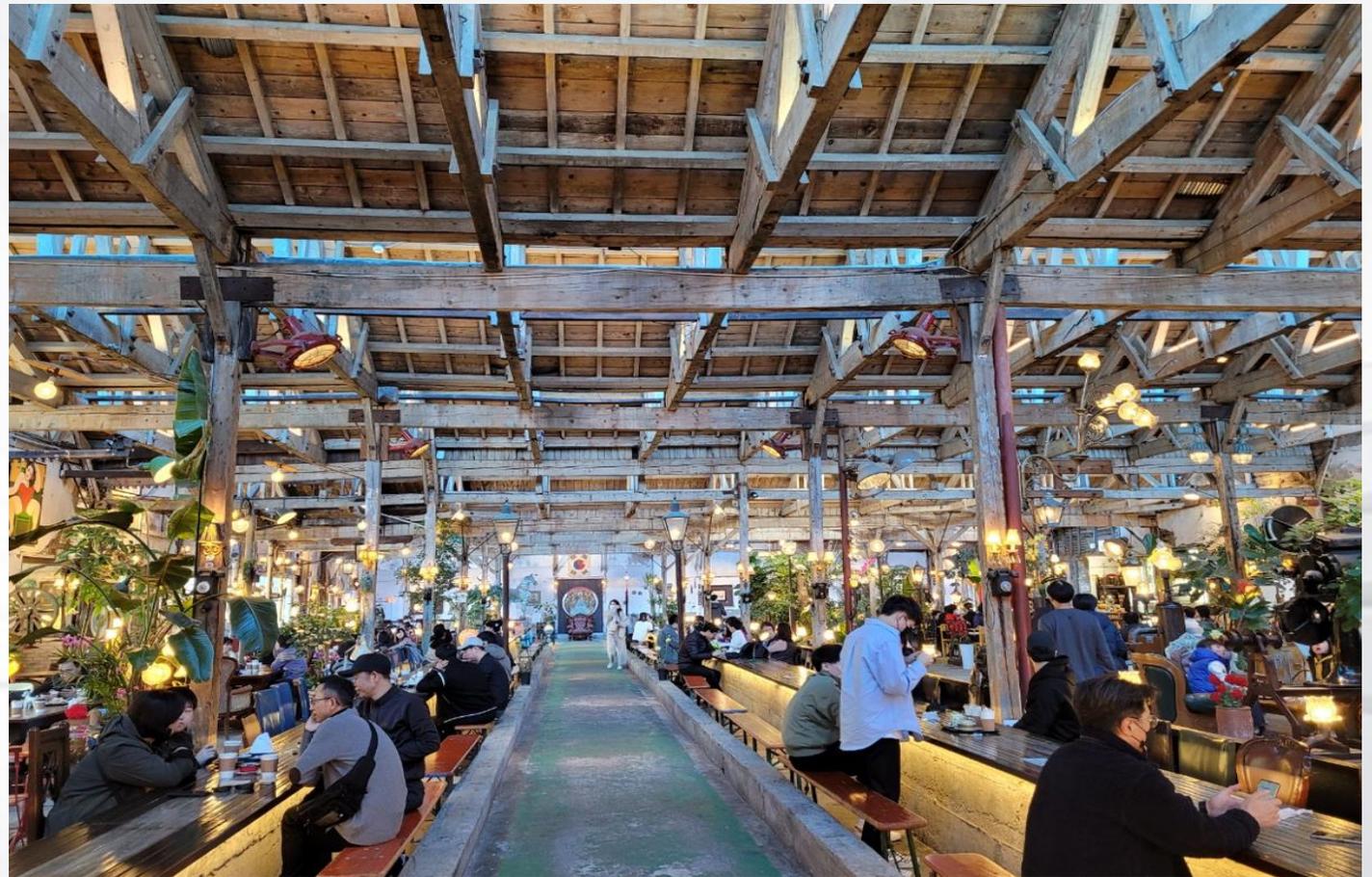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④ 강화도 옛 조양방직 공장 모습_21.11.14.(일)



IV. 문화적활용(문화재생) 방안

④ 강화도 옛 조양방직 공장 모습_21.11.14.(일)



감사합니다